

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

풍성한 명절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명절을 맞아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두 손 모읍니다.

가정 소식

아이들이 긴 여름 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해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캠프 등을 섬기면서 봉사도 하고 부족한 공부도 하면서 감사히 보내었습니다.

둘째 정우는 세례에 대한 의미를 매주 토요일마다 배우며 10월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 소식

요르단은 여름이 건기이고 물 부족 국가라 일주일에 한 번 공급되는 물로 일주일을 쓰게 되는데 이번 여름은 각 지역마다 물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어느 여름 때보다 불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도 2배로 올라 무더운 여름 더 힘들게 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지역의 여러 주민 센터들이 거의 문을 닫은 채로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나마 작은 도움을 주던 곳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저희가 다시 들어와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치원 사역, 방과 후 수업, 여성 직업교육, 방문 사역 등을 감당했던 저희 센터가 하루 빨리 다시 문을 열어 그 지역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인 저희 센터장이 센터가 다시 문을 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변화되길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현지 관장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져 감을 봅니다. 날마다 지역 유지들과 이만들의 방문에 긴장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로 불리면서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강성 무슬림 지역인 이곳을 영적 전쟁하는 마음으로 늘 가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곳에 있길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 제목

1. 저희 지역 센터가 문을 열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 다음 달에 있을 비자 갱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저번 학기 아이들 학비를 아직 다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